

# 정읍시 '도시재생 어울림 한마당' 성료

활동가·주민 등 200여명 참석

우수사례 발표·상생 협약식

우수 주민협의체·참여자 시상도

정읍시가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도시재생 활동 공동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10일 '도시재생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비롯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 활동 공동체,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도시재생 어울림 한마당'을 주제로 열린 행사는 수준 높은 공연으로 지역 음악계에 연주바람을 일으킨 '박세련 클래식레지던시팀'의 연주로 시작했다. 이어 도시재생 활성화 유공자 포상과 도시재생 사업 추진 경과보고, 우수사례 발표, 참여·소통·공감 한마당 토크콘서트, 도시재생 상생 협약식 등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리본주민협의체 이재은 위원장과 현장지원센터 김은희 코디네이터가 정읍시장 표창을 받았고 이외에도 9명의 도시재생 참여자들이 시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주민들은 평소 원도심 시설과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진섭 시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



지난 10일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회 도시재생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서 유진섭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사패를 전달했다.

2부 행사에서는 '정향누리 오향(五香)'을 주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공동체 22개 팀의 성과물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정읍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은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역할과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준다면 원도심의 재생과 활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쌍화차 거리와 새암로, 우암태평로 명품 특화거리를 조성했다. 수성동과 연지동, 시기동, 장명동 등 원도심에는 상권 활성화와 환경정비, 행복주택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s@

# 내년 9월 2일부터 4일간 남원시 전북도민체전

대전·지방선거 등으로 하반기로 연기

전북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전라북도민체육대회(도민체전)가 내년에는 남원에서 열린다. 전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생활체육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열리는 제59회 도민체전의 일정을 확정지었다.

이에 제59회 도민체전은 내년 9월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남원시 일원에서 펼쳐지게 된다.

도민체전의 경우 매년 4-5월에 개최됐지만 대통령 선거(3월), 남원 춘향제(5월) 지방선거(6월) 등 상반기에 겹쳐진 일정이 많아 내년에는 하반기로 연기·개최기로 했다.

대회는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치러지며 38개 종목(정식 37개·시범 1개)에서 도내 14개 시·군 선수들이 선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도민체전과 함께 내년에 펼쳐질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와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대회 일정도 결정되었다.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6월16일 무주군 일원에서, 동호인리그 왕중왕전은 11월 5-6일 장수군 일원에서 열리게 된다.

한편 올해 도민체전의 경우 당초 익산시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전 시·군에서 두달 동안 분산 개최됐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익산시,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행정력 집중

추진위원회, 조성계획 심의·의결

익산시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행보에 집중한다.

익산시는 최근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열고 '법정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와 역사 재인식, 시민주체 플랫폼 구축, 보석문화도시, 문화도시생태계 구축 등 4개 방향을 설정해 문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특히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인간에 대한 존엄과 지역이 가진 문화를 문화도시에 녹여 낼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익산학 시민문화학교, 문화도시 삼삼오오, 보석관광 프로젝트 등 12개 세부 전략 사업을 전개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도시발전엔 문화가 스며들고 이를 통해 도시의 분위기와 품격이 달라질 체부와 긴밀히 협의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이달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최종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정 시 5년간 최대 200억원(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을 지원받게 된다.

/익산=유영경 기자 yjy@

# 20년 된 군산 수산물센터, 내년 하반기 3층 규모로 신축 개장

청년 퓨전식당 등 점포 다양화

지은 지 20년 된 군산 수산물센터가 옛 도심 부흥을 주도하는 중심시장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군산시는 현 센터를 철거하고 총면적 4000㎡, 3층 규모의 수산물종합센터를 새로 지어 내년 10월까지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3년 개장한 이곳은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1층에는 선어·건어·활어를 판매하고 2층에는 10여 개의 횡집(400석)이 있지만, 건물이 낡아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판매와 가공, 유통, 냉동·냉장 시설,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옛 도심의 중심 시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횡집 운영에서 벗어나 상차림만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해산물 퓨전식당 등을 배치해 점포의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표 상품에 대한 가격공시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라이브커머스(생방송 상품 판매), 마을기업 입점, 시장 체험 교육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방문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수산물 소비 촉진과 수산물 유통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 근대역사 문화지구와 연계한 새로운 수산물 특화센터가 조성되면 해망동의 옛 명성을 되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지난 9일 고창군 유교문화체험관에서 교육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륜대학원' 수료식이 열렸다.

# 고창유교문화체험관 '명륜대학원' 수료식

교육생 45명 68시간 34강 수강

고창 유교문화체험관이 운영하는 '명륜대학원' 수료식이 열렸다.

명륜대학원은 올해 처음 개관한 고창유교문화체험관에서 운영하는 대표 인문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고창군민을 대상으로 총 34강, 68시간 과정으로 동양사상과 유교경전 등의 이해를 통한 인문학과 인성 교육을 실시했다.

수료식은 총45명의 교육생 수료자를 대표해 홍중남씨(고창 아산)에게 수료증 수여 및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누구나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진정한 인문학 도시 고창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인문학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송 명륜대학원 대학원장(고창향교전교)은 "올해 운영에 따른 교육 내용 등의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더욱 알찬 전문 유학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명륜대학원은 올해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내년 3월부터 다시 운영할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순창군, 군정홍보 강화...온라인기자단 모집

13일~17일 신청서류 접수

순창군이 군정에 대한 온라인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기자단을 모집한다.

군은 블로그 분야 10명, 영상 분야 3명 등 총 13명의 온라인기자단을 모집한다며 추후 선정된 이들은 오는 2022년 1월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자단 모집은 순창의 다양한 정보를 대

내의 홍보하고 온라인 홍보 활성화를 위해 영상과 블로그 등 각 분야에 관심 있는 전국의 민간인을 선정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여행과 글쓰기, 영상제작을 좋아하는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기자단에 선정되면 순창군의 문화·축제·여행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사나 제작된 영상을 블로그, 유튜브 등 게재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받게된다.

신청서류는 군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13일~17일 지원신청서와 순창의 소개 글이나 순창 소개 영상을 제작해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오는 22일 군정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국의 능력있는 기자들의 참여를 기다린다"며 "내년도 온라인 기자단 운영으로 군의 다양한 정책과 관광지를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